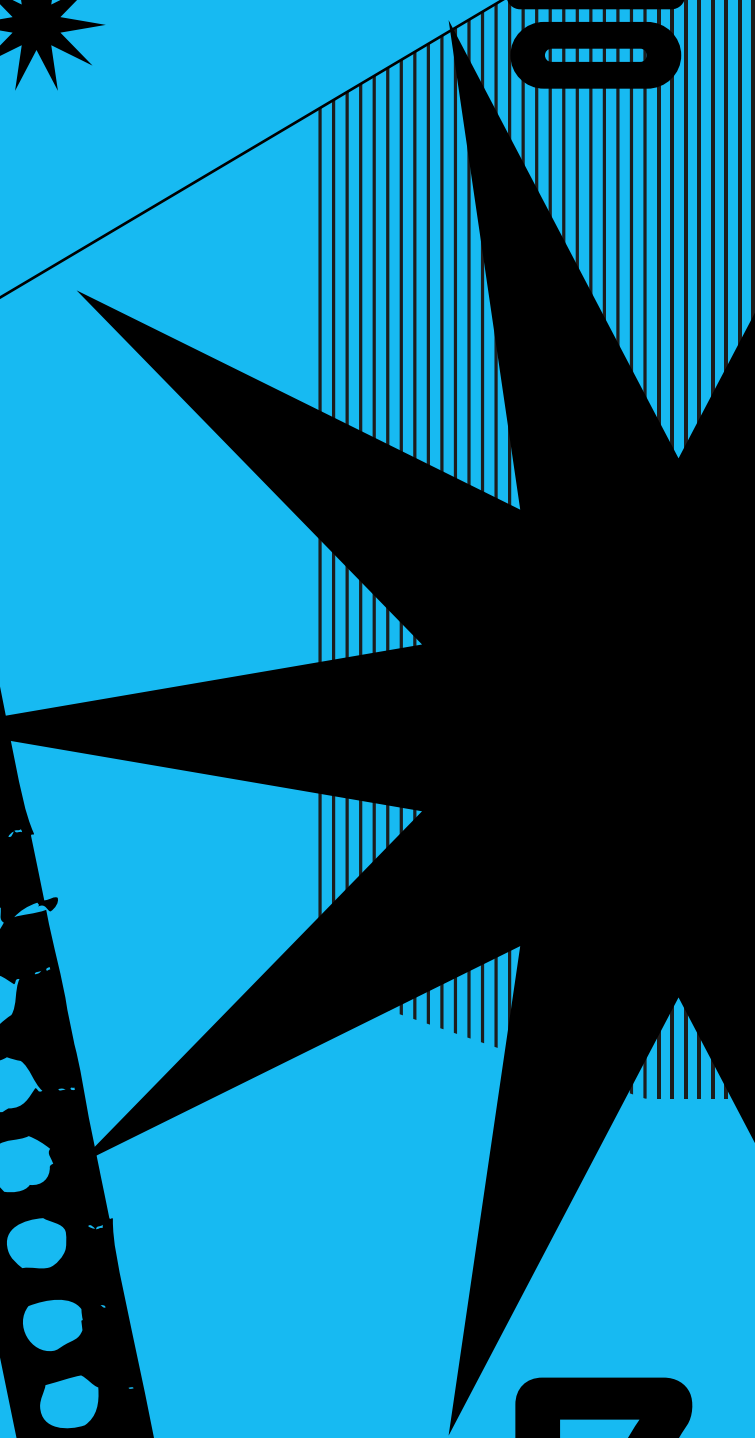


# 월간 月刊 刊

기슬기 Seulki Ki  
김재민이 Gemini Kim  
문영민 Young Min Moon  
박형준 Hyung Jun Park  
보슈 BOSHU  
심소미 Somi Sim  
이원호 Wonho Lee  
이형관 Hyeong Gwan Lee  
해변의 카카카 Cacaca on the Shore

# 인미공



# 7

접힌 경계: 안과 밖  
Boundaries in  
Disguise:  
Inside Outside

대안적 성격의 공공 기관으로 예술인 지원 및 전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인미공은 2020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과거를 복기, 기념했던 해는 바뀌어 이제 2021년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미공의 20년 중 지난 1년간 전에 겪어본 적 없는 질병이 세계를 뒤덮었고, 빠른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 또한 180도 바뀌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경계(境界)가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무한한 세계가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들은 그것의 진실을 탐구하는 대신 이미지의 조각을 모으고 연결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하는데 협조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과 그 방향에 대한 기대가 '미래'로 정의되며, 사회는 새로움을 강조하고 선점하는 전략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쇄도하는 정보량은 마치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경계(境界)가 유연하고 허물어진 듯 보이게 하지만, 필터를 걷어 오프라인의 풍경을 관찰해보면 실상 그 어느 때보다 '내 것'과 '네 것'의 경계(境界)는 완강하기만 합니다. 이동 제한으로 인한 지역 붕괴와 소멸 위험, 양극화, 혐오, 차별 등의 심각성은 명확한 정의나 대책 없이 가려진 채 그저 부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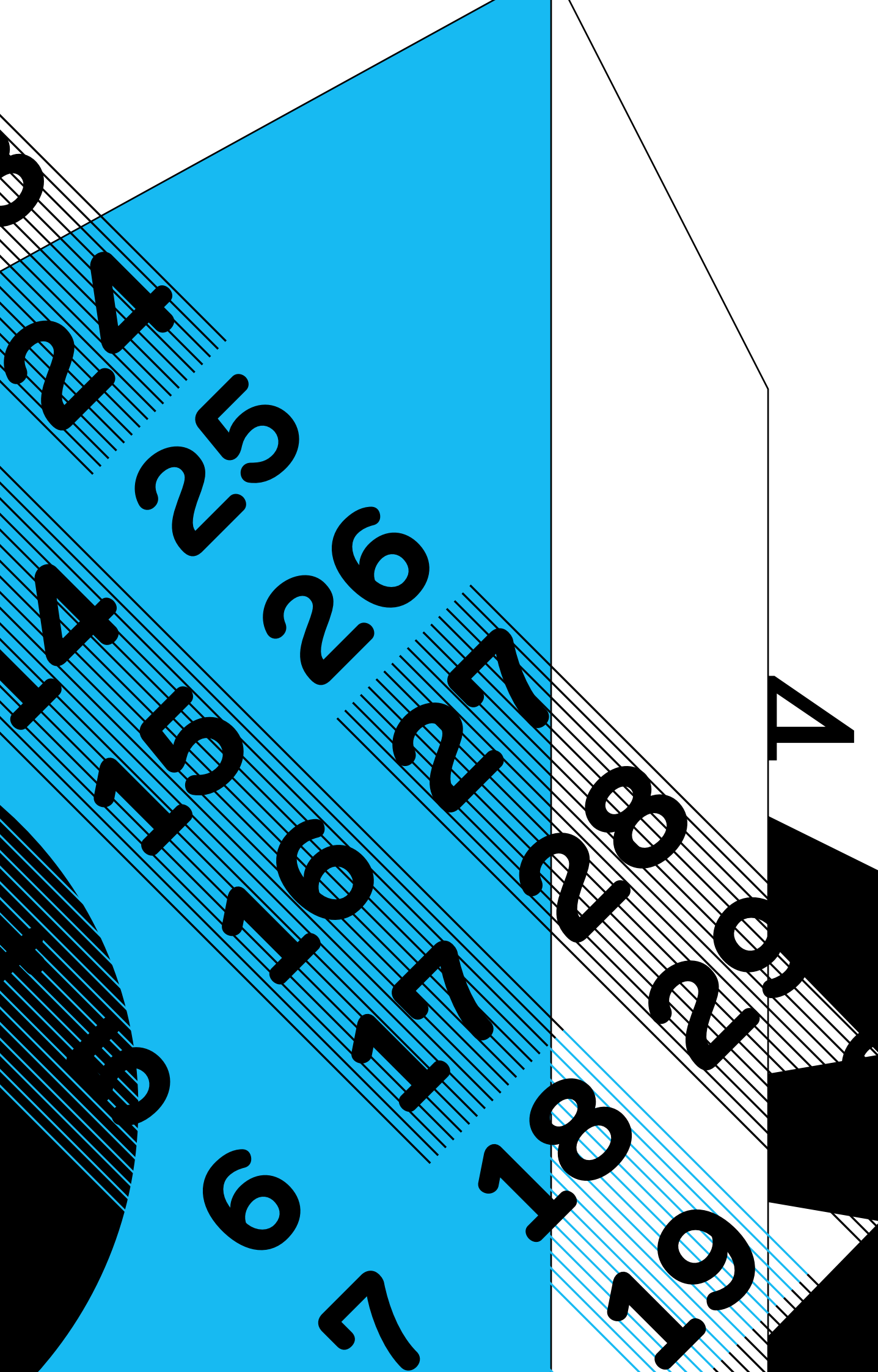
그간 공공성, 담론 형성을 강조하고 급진적 프로

젝트를 이어왔던 인미공은 계속되는 뉴노멀의 불분명함과 불투명함 사이에서 다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합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인미공 2층을 활용하여, 가변적이고 느슨한 장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획된 『월간 인미공』은, 인미공의 과거 활동에서 얻은 키워드들과 몇 개의 문제적 주제를 잇대어 인미공 2층에 늘어놓습니다. 즉 팬데믹 이후의 이동/이주의 변화, '내' 공간을 지키는 일의 어려움, 지역/계층간 경계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존재 등 오늘날 우리가 딛고 있는 곳의 단면을 고찰해봅니다.

『월간 인미공』은 인미공의 시각예술 연구-기획-발화의 역할을 재고하는 성글고 열린 테스트 베드로, 3개월 동안 매월의 주제와 창작자들의 결과물을 연결하고 충돌시키며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인미공 홈페이지([www.arko.or.kr/insa/](http://www.arko.or.kr/insa/))와 인미공 2층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월간 인미공』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으로 점철된 오늘/미래를 매듭짓거나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시대를 지켜본 창작자들의 언어가 생산되고 파생, 확장되는 과정을 추동하여 인미공의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

24

25

26

27

28

29

14

15

16

17

18

19

6

7

4

월간 인미공  
7월호

접힌 경계:  
안과 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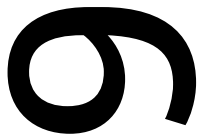
김미정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57

"하나의 장소는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고안되어야 한다."∴

7월 『월간 인미공』은 《접힌 경계: 안과 밖》이라는 제목으로, 팬데믹 이후 빈번하게 사용되고 등장하는 '경계'를 다각적으로 살핀다. 미술 저널 'e-flux'는 코로나19가 국가 간 경계를 조롱하고 강화했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강화된 경계는 지리적 영역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지역 내의 부/가난, 젊음/늙음, 아픔/건강함 등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된 개념들이 더욱 더 양극화되었다는 것이다. ■■■ 결국 국가의, 지역의 안팎으로 차단된 경계(境界)는 견고한 경계(警戒)를 구축했다.

이 글의 시작으로 사용한 문장의 출처는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의 『그림자 선 *The Shadow Lines*』(1988)으로, 공간과 장소, 지리가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한때 물리적 이동은 물론 정보의 이동 또한 자유로워 경계란 그저 암묵적인 약속 혹은 규칙처럼 느껴지던 적이 있었다. 시각예술 관련 글에서 자주 만나는 경계도 그저 '넘나들며' 활용 가능한 단어였다. 그러나 새로운 질병의 창궐 이후 사회의 모든 요소에는 꽤 강고한 경계가 설정되면서 사회 기저에 깔려 있던 긴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접힌 경계: 안과 밖》은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팬데믹 이후 그 역할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감각으로서 지각되는 경계(境界·警戒)를 상상하고



∴

Amitav Ghosh,  
*The Shadow Lines*,  
Houghton Mifflin,  
1988, 산드로 메자드  
라, 브렛 닐슨, 『방법  
으로서의 경계』, 남청  
수역, 갈무리, 2021,  
p. 58에서 재인용.

■■■

<https://www.e-flux.com/announcements/325575/e-flux-reader-borders/> (2021년 6월 29일 접속).

읽어보고자 한다.

먼저 들여다볼 것은 지역(Local) 간 경계의 문제이다. 국외로의 이동이 불가해지면서 자연스레 국내 환경, 자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내'가 거주하고 서사를 쌓아나가는 이곳이 팬데믹의 대안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한편 2020년 대한민국의 주민 등록상 인구의 첫 감소가 시작되었고 200여 개의 시군구 중 약 46%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갈라지는 지역양극화와 소멸의 문제 그리고 로컬이 위기의 대안이라는 찬양이 상충하면서, 작금의 로컬 담론과 정책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연결하여 'e-flux'가 코로나19 이후의 경계는 영역 구분선 뿐 아니라 양극화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듯 차단과 차별로 인한 경계(警戒)의 태도가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변화를 고찰한다.

물론 경계가 분할과 배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접힌 경계: 안과 밖》은 경계라는 단어가 가진 두 의미가 서로 엮여 발생하는 충돌의 지점에 주목한다. 이에 《접힌 경계: 안과 밖》에 참여한 작가 및 연구자들은 경계의 다면적인 양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덧붙인다. 먼저 지난 4월 방영된 KBS창원의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아카이브 페이지 및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형관 기자와의 인터뷰로 지역 소멸의 실태와 문제점을 들어본다. 부산외대 박형준 교수는 로컬



리티에의 환상을 비판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사업이 실행되는 현실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 '파멸적 집중'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발화하고 연대를 희망하는 대전의 페미니즘 콜렉티브 'BOSHU'의 글과, 경남 남해에서 활동하는 '해변의 카카카'의 지역 소멸에 대한 무크지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경계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을 《접힌 경계: 안과 밖》과 연결해본다. 기슬기는 《접힌 경계: 안과 밖》의 참여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하여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촬영된 결과를 모아 봉합하고, 김재민이와 이원호는 서울의 안과 밖의 경계를 걷고/달리며 지역 간에 내재된 미묘한 구조와 관계를 살핀다. 문영민은 동서양의 종교문화를 모두 겪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타자에의 애도, 문화의 이종교배,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사라는 대상에 담는다. 마지막으로 파리에 거주 중인 큐레이터 심소미는 봉쇄령 당시 경험한 집과 도시의 경계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전한다.

《접힌 경계: 안과 밖》의 참여 작가 및 연구자들은 각자가 경험하고 있거나 해석한 경계 그리고 그 영향이 안팎에 작동하는 현상들을 탐색한다. 그들의 시선을 통해 접혔다 펼쳐진 경계 주변의 서사는 특정 사례의 나열이 아니라,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이어질 미래의 장면들이다.





2

23

3

24

4

4

25

5

5

26

6

6

27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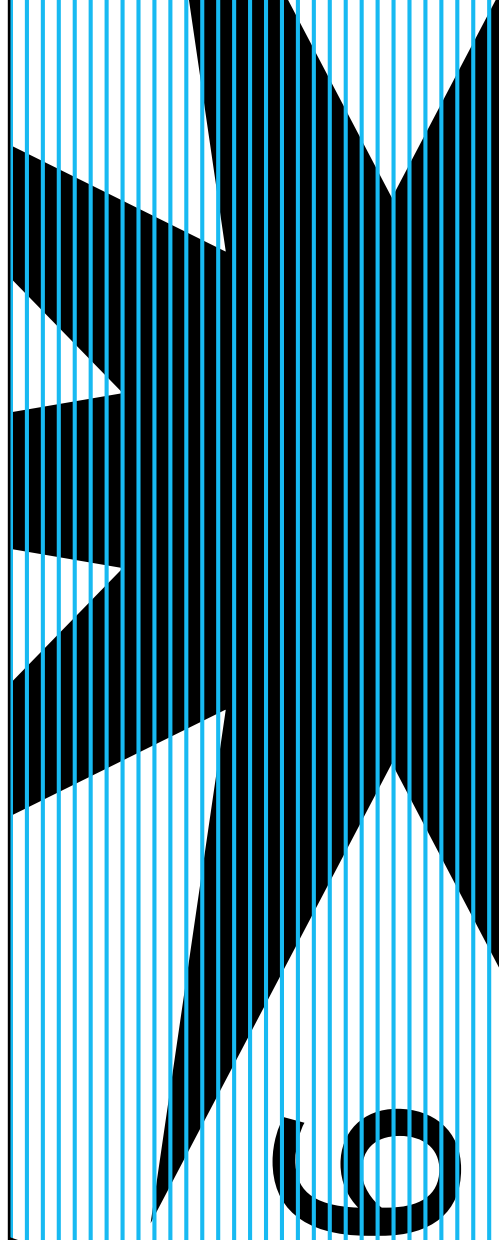
28

8

8

29

9



6

- 인터뷰 11  
소멸의 땅: 위기를  
인지하는 기록  
이형관  
(KBS창원 기자)
- 꿈꾸는 로컬리티: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예술 25  
박형준  
(문학평론가, 부산  
외국어대학교 한국  
어문화학부 조교수)
- 전염병 이후, 집과  
도시의 경계 36  
심소미  
(독립 큐레이터)
- 서울, 실시간 46  
BOSHU  
(대전페미니스트  
문화기획자그룹)

여의도 한 금융사에서 일을 하다, 2019년 KBS에 입사해 기자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KBS창원 심층기획팀 소속이며, 다큐멘터리 제작과 사회 고발 이슈 등에 관심이 많다. 『내가, 정치를, 왜』(공저, 2017)를 출판했다.

# 인터뷰

## 소멸의 땅: 위기를 인지하 는 기록

이형관  
(KBS창원 기자)

# 11

2021년 4월, KBS창원은 5개월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기획된 다큐멘터리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을 방영했다. 전문가 인터뷰, 현장 답사 및 취재, 데이터 등으로 지역의 현실 및 지역 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린 이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소멸론과 지방소멸지수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지난해 처음 자연 감소하면서 '축소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역소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7월 『월간 인미공』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KBS창원 이형관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그가 취재한 지역 소멸의 현실을 들어보았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2021)을 시청한 후 궁금한 점을 정리하여 질문 드리니,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극명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의 내용은 말 그대로 한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고, 관련 이미지 및 전문가,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 이후 상승한 로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멸의 위기가 상충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기획 배경, 리서치 기간이 궁금하고 방영 후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는지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25만 도시의 종합병원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다고?"

2019년 12월, 경남 거제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환자가 줄어, 경영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시골도 아닌 인구 25만 도시에서, 그것도 종합병원 산부인과가 문을 닫다니! 지방 소멸 위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담론인 이른바 '지방 소멸'은 지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학계나 언론에서 지방 소멸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시골 마을이 사라지는 정도의 단편적인 현상을 나열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문제가 지방 소멸이지만, 정작 이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KBS 취재진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국토 면적의 약 88%를 차지하는 지방의 현실과 그곳

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지방소멸의 현주소와 그 원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미비점, 현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등 지방소멸을 둘러싼 가능한 모든 영역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취재와 편집 등 총 제작 기간은 모두 5개월입니다.

KBS 취재진은 가장 먼저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지방 소멸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남 진주와 하동, 경북 의성과 군위, 대구, 부산 등 영남권 8개 시·군부터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광주 등 호남권 3개 시·군, 충북 진천과 음성 등 충청권 2개 군, 그리고 서울과 일본 도쿄와 히메지시, 도쿠시마현까지. 취재 현장만 모두 17곳입니다. 총 이동 거리는 해외를 제외하고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확인한 것은 '국토 골다공증' 현상이었습니다. 골밀도가 줄어들어 뼈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처럼, 우리나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줄어들어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는 등 곳곳이 텅 비어갔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농산어촌에서 중소도시로, 다시 지방 대도시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마친 뒤, '왜 지방 소멸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현상이기에 KBS 취재진은 해답을 얻고자 △KAIST 데이터 연구팀, △리서처와 번역가, △학계 자문단과 함께 심층적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국 시·군·구 인구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카토그램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카토그램은 인구 숫자에 따라서 면적의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지도입니다. 이 방법으로 시기별 지방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쏠리다 보니 자본과 기업도 함께 수도권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1960년대 전체 20%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현재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 30%, 의료기관 51%, 정부투자기관 90%, 예금 70%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형이 지방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다큐는 매우 이례적으로 시청률 5.1%를 기록했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유튜브 조회 수도 6월 23일 현재 25.5만 회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1,300여 개가 달리면서 정부 균형발전 정책

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공론장도 열렸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은 '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쓸림으로 나타나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취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방송 분량의 한계로 다큐멘터리에는 담을 수가 없어서,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에만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시청자분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우리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에 소홀했다는 것을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피드백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2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료가 아카이브 된 홈페이지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회차별로 인터뷰, 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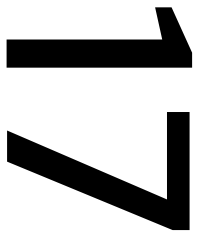


터 등을 아카이브 하고 (어떤 분위기를 상기하게 되는) BGM까지 첨부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신, 공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애초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 들어갈 5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한 편만 제작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취재 내용을 한 시간짜리 방송으로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었고, TV를 보지 않는 2030세대에게 지방 소멸 문제의 일면을 알릴 수 없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형태의 뉴스가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취재 내용을 보관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제작 기간 5개월 동안 전국 17개 도시를 현장 취재했고, 카이스트 연구팀과 함께 빅데이터를 공수해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만 일회성으로 사용되기에는 아까운 취재 내용일 뿐더러, '기록하다'라는 KBS 보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취재 내용이 정부 정책과 학계, 시민사회 등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해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KBS 취재진은 시청자들이 이 같은 정보를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제작과 함께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텍스트와 영상, 데이터 시각화 자료 등을 종합해 한꺼번에 쏟아내는 웹페이지,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를 제작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텍스트와 사진만 넣는 1차원적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아닌 텍스트와 사진, 그래픽, 동영상, 3D 데이터 지도 등을 통합 편집한 입체적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구축했습니다. 웹페이지를 마우스 스크롤과 클릭 등 독자 행위에 반응해 움직이도록 설계해 독자의 경험까지 높였습니다. 글쓰기 역시 사용자 편의성(User Interface)을 고려해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 3

몇몇 연구자들이 지역소멸위험지수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서 소멸 위기의식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의 기준이 젊은 가임 여성의 수라는 게 비판의 지점 중 하나이고 지역소멸위험지수 대신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지수를 적용한다면 소멸 위험 지역인 일부 지역과 농촌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결국 어떤 지수를 적용하던 결론은 동일하며 정책 변화와 인프라 해결이 시급한 듯 보입니다.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는 마스다 히로야(増田 寛也)의 지역소멸지수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데, 기자님께서도 이 지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피드백을 받으셨는지요.)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4년 일본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 씨가 만들었습니다. 해당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지방의 소멸 위험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취재진은 마스다 히로야 씨와 이상호 박사 모두를 인터뷰했기 때문에, 해당 지수의 한계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취재진은 지방소멸위험지수만을 근거로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공수해, 국내 읍·면·동 빈집 지도를 만들었는데, 빈집의 분포가 지방소멸 위험지도의 분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토그램 지도를 통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 인구 이동 흐름을 파악한 결과, 지방에서 인구가 심각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와 함께 국내 읍면동 빈집 지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한다는 메시지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4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는 일본의 인구감소 및 각 지역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며 시작하는데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이후 인구 고령화 및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이나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문제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취재하시면서, 혹시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셨다면 일본과 한국의 상

## 황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재했던 일본과 한국의 사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의 유사한 사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극점 사회'가 그것입니다. 극점 사회는 지방이 쇠락하고 대도시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사회 형태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등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식입니다.

극점 사회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인프라 등의 환경 조건이 전부 대도시권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 가뜰이나 인구가 많은 도시에 인구가 더욱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과밀화로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대도시권의 출산율은 낮게 유지됩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아가다가 극점 사회에서는 모두 한꺼번에 고령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회의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인구가 몰려있는 정도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정부와 시민 사회에서 하루빨리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5

도시공학 및 지리학자들은 지역의 인구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철도역 설립, 압축 도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결국 인구 증가에 필요한 건 결국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 형성일텐데, 6월 9일에 시작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3장의 "공생과 공멸 사이"는 일자리와 정보 등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진입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형성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입'해야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님께서서는 취재하시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곧 공멸로 이어지는 상황의 가장 큰 원인/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더불어, 최근 등장한 각종 정책 중 기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정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ex 공유대학, 광역철도, 문화사업 외)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국가적 공멸을 낳을 수 있는 까닭은 사실, 다큐멘터리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서울대 인구학 연구실에서 만든 '출산율과 인구밀도' 상관관계를 그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고, 낮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한 공간에 사람이 많으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출산이라는 '재생산 본능'을 앞서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이 이 논리를 일상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셨는데요.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를 생각해볼까요. 결혼을 했으니, '어느 순간에 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러다 이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2호선 '지옥철'을 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주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구나. 이랬다간 이게 정말 실현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해, 특정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을 위해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줄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0.84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도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의 출산율은 정말 초저출산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한 2030년, 2040년 되면 인구가 이제는 더는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방에 인구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이 서울과 수도권이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공멸'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정책도 이와 관련한 것인데요.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입니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도시를 말하는 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란 부산과 울산, 경남이 연결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한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면 인구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부산과 울산, 경남은 현재 거점 도시인 창원과 부산, 울산에 도시 기능을 압축하고, 김해와 진주 등 중소도시에 연결을 하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경험한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 중앙정부 주도 아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그 효과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또한 시골의 작은 마을이라든가 소도시들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 6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홈페이지](#)

의 각 챕터의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널리 알려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이유와 함께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그리 큰 문제인가?', '수도권에 다 같이 모여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다큐를 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라지는 도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방의 위기는 꼭 지방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년 8만 명 이상의 인구가 비수도권에서 빠져나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30대는 10만 명 이상입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폐해가 생기고 지방은 이렇게 가다간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방의 소멸은 '정든 마을이 사라진다', '지방 사람들의 박탈감이 심하다'는 안타까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지방 소멸은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넘어 생존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지방의 위기가 곧 나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4

❦ 이형관 기자는 참고 자료로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기획과 관련한 인터뷰 url을 송부했다. 국가 위기로 직결되는 '지방 소멸'(PD Journal, 2020.12.23.)<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38>, "지방소멸 문제 심각... 지도에 서울만 남는 상황 된다" (고발뉴스닷컴, 2021.4.10.)<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46>(2021년 7월 7일 접속).



197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하였다. 부산에서 발행하는 비평 전문 계간지 『오늘의 문예비평』의 편집위원과 편집주간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문무 크지 『아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비평집 『모컬리티』는 환영: 지역이라는 로맨티시즘과 문학/비평의 분열』(2018), 인문예세이 『함께 부셔질 그대가 있다면』(2020) 등이 있으며,

# 꿈꾸는 로컬리티:

## 코로나19 이후의 지역/ 예술

박형준  
(문학평론가,  
부산외국어대학  
교 한국어문화  
학부 조교수)

# 25

『모컬리티』는 환영』으로 제1회 '문화多 평론상'(2018 올해의 평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예술과 문학, 그리고 인문학이 우리 삶의 억압적 감성 구조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방법이 되기를 바라지만, 많이 이들이 예술을 잘 아는 것보다 '예술적인 삶'에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한다.

1

코로나19 사태가 두 해째 이어지고 있다.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법의 보편화에서 알 수 있듯, 전 지구적인 감염병은 인간의 일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예술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예술적 사유와 실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문화 생태계 전반이 위기다. 공연과 전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접촉과 비접촉,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예술의 사막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예술 향유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 둘째, 예술인의 창작 기반과 존립 조건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몇 년만 더 지속된다면 예술문화 생태계는 완전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창작/향유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지역의 예술문화 현장은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된다.

지역의 예술 커뮤니티가 힘을 모으고, 일상과 예

술의 매듭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그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부산지역에서 비평전문지를 만드는 데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자면, 지역의 예술문화 생태계는 그리 우아하지도 결속적이지도 않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필자가 살아가고 있는 부산에 국한된 사례만은 아닐 것이다.

## 2

'지역(Local)을 주목하라!'는 구호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주변부 문화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중앙중심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좌표와 가치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은 비판적 문화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이를 위해 지역 예술문화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작업이 작가, 비평가, 연구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복원하는 작업은 소중하다. 그러나 '로컬리티'를 본질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언제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봉착한다. 로컬리티는 역사적 궤적에 따라 재구성되는 '유동적 기표'이기 때문이다. 예술이 순혈적이고 고정화된 로컬리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타의식으로 점철될 때, 중앙과 지역이라는 경계, 위계 구조, 지배-종속 구조는 오히려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지역의 예술문화 장을 위태롭게 만드는 무서운 돌림병이지만, 역으로 지역 예술문화 장의 은폐된 권위주의와 허위의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

도 한다.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이동과 교류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예술 커뮤니티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노출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예외 상태'가 그것을 가시화한 것이다.

첫째, 팬데믹 이후 지역 예술문화 커뮤니티는 운동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과 교류가 부재하고, 예술 작품을 매개로 한 비평적 네트워킹이 축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학 장의 경우, 문학의 가치와 사회적 책무에 관한 치열한 질문과 실천이 사라지고 있다. 문학 관련 프로그램은 문인과 문인 사이의 친목과 유대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예술 작품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보다 자족적인 작품 기획과 생산에 골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지역에 훌륭한 작가, 비평가, 기획자, 활동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필자에게도 해당하는 뼈아픈 지적이지만, 문학을 비롯한 예술이 작가의 사적 기록으로 침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나르 시시증적인 작품 창작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는 셈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부의 학벌/학연 카르텔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고교, 대학, 대학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예술문화 정책사업의 기획과 수주가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토포필리아와 도덕적 수준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전근대적 벌열 체계를 학문의 전당

으로 옮겨와 연구자, 창작자, 활동가를 줄 세우는 권위주의적 폐단/계보가 당연시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물론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바깥과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지역 예술문화 장은 훨씬 더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지역 내부의 자기 점검 체계와 비판적 시좌(視座)가 사라질 때, 지역은 예술문화의 불모지(不毛地)로 사막화된다. 논쟁과 비평은 로컬리티의 토대이다.

실제로, 지역 예술문화 장은 조화롭고 순수한 합일의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욕망과 입장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쟁투의 공간이다. 로컬리티가 연대와 조화를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정초해가는 문화적 거점이라는 생각은 몽상(fantasy)에 가깝다. 로컬리티란 기득권의 헤게모니 구조를 타파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불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최소한 예술의 영역에서만큼은 그러하다.

하나의 증례. 작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예술문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미술 사업을 진행해 왔다. 부산 동구의 '초량천 예술 정원' 사업도 그중 하나이다. 팬데믹 이후 예술과 일상이 단절되고,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이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에서의 문화적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에 선정되어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초량천 예술정원' 사업이 완성 전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역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여기에 특정 정당의 시의원까지 뛰어들어 정치로 쟁점화 되는 양상이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최정화 작가가 초량천에 설치 중인 <초량 살림숲>(2021)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 작품은 지역 주민들에게 기증받은 살림살이 도구를 재료로 삼아 주민들의 사연과 애환이 담긴 '조형 숲'을 만드는 예술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초량천 예술정원 웹 포스터를 참조하면, 2021년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무쇠 솔, 알루미늄 냄비(양은 냄비), 스테인리스 냄비, 페타이어(고무), 부표(플라스틱), 고무 다라이, 고무 플라스틱 화분, 폐철, 폐부품" 등과 같은 "낡은 살림살이 도구"를 기증받고 수집해 작품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수는 3,000여 개에 이른다.

2020공공미술 프로젝트 <초량천 예술정원>  
**낡은 살림살이 도구를  
 예술작품 재료로 기증해 주세요!**  
 최정화 작가와 함께하는 초량살림숲

**기간**  
 2021년 2월 17일 ~ 4월 4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 11:00~17:00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3,  
 동구청장애인도서관 1층 기증품 접수처

- 참여 방법**
- ▶ 누구나 참여 가능
  - ▶ 현장 방문
  - ▶ 수거 신청 (sls2021@naver.com)
  - ▶ 우편발송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3, 동구청장애인도서관 1층 접수처)

**수집종류**  
 무쇠 숟, 알루미늄 냄비(양은냄비), 스테인리스 냄비,  
 페타이어(고무), 부표(플라스틱), 고무 다라이, 고무  
 플라스틱 화분, 폐철, 폐부품, 콘크리트 돌, 자전거 바퀴,  
 자동차 휠 등

**참여 혜택**  
 초량 살림숲 기념품 및 기증서 증정,  
 작품제작 시 기증자 성함 기록



<초량 살림숲>  
 참여 포스터  
 이미지 출처:  
 <초량 살림숲>  
 보도자료  
<http://www.bsdonggu.go.kr/RSA/front/Search.jsp>  
 (2021년 6월 24일  
 접속).

최 작가의 <초량 살림숲>은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다. 그래서 미학적인 판단은 다소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작품의 취지가 공공예술의 가치와 형식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작품 제작을 위해 지역 주민이 기증한 살림살이가 예술의 재료나 형식이 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공미술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획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현재 설치 중인 <초량 살림숲> 작품을 두고 시각적 불편함을 토로했고, 지역 안팎의 언론에서 그 내용을 보도했다.

❖ 공공미술은 공간의 역사, 작가의 창작 의도, 시민의 향유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 창조적인 텍스트를 직조한다. 미술(비평)에는 과묵한 탓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공미술이 설치되는 장소의 의미는 생산과 순환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된다. <초량 살림숲>이라는 조형 텍스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발화되고, 또 그 작품을 매개로 공공미술의 가치와 방향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래 '숲'은 다양한 생명체의 기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생태 공간이다. 약간의 비유가 허락된다면, 최정화 작가의 <초량 살림숲> 역시 팍팍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굴곡진 인생사와 다양한 입장이 순환하고 또 조정되는 조형적 생태 공간이라 부를 수 있다.

<초량 살림숲> 논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정작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가치와 공간적 함의에 관한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도 "홍물", "쓰레기" 등과 같은 자극적인 보도만 내놓았을 뿐, 비평적 탐사와 학술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 지역 예술의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자리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반응과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하며,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혹은 로컬리티

❖ 대표적인 기사가 「조형물 '초량 살림숲', 예술인가 쓰레기 더미인가」(부산일보, 2021.5.9), 「"조형물 인지 고철더미인지"... 부산 초량천 예술정원 '홍물' 논란」(시사저널, 2021.5.20.)이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75> (2021년 6월 24일 접속).

32

■ 「이대한의 대안 모색 <3> 도시 속 '변수', 공공미술」(국제신문, 2021.6.3.) 이 거의 유일한 답사기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10604.22016000094> (2021년 6월 24일 접속).



는 결속과 연대의 공간/의미가 아니다. 지역의 예술문화 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결하는 치열한 담론의 공간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대와 불화는 은폐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성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야 할 로컬의 조건이다. 조화와 불화, 적대와 연대, 그 경계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로컬리티가 생성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 3

전 지구적인 돌림병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선 이동이 대부분 차단되었다. 특정 지역과 국가,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으로 발화되는 상황에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건축 등과 같은 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예술은 지역, 국가, 민족, 인종, 젠더, 환경 등의 다양한 차이와 경계를 가로질러 다원적 교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계를 넘어 미술의 힘을 실천하고 있는 로컬리티 미학의 사례가 있다. 바로, 경상남도 김해의 '스페이스 사랑농장'에서 열린 《미얀마의 봄: Art for freedom Myanmar》(2021) 전시이다. 이 전시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미얀마 군부의 억압적인 통치 장치와 야만적인 폭력 진압을 비판하고, 국경과 언어를 넘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각언어를 발명하며 연대하였다.

스페이스 사랑농장  
《미얀마의 봄》 전시  
포스터  
이미지 제공:  
스페이스 사랑농장



34

꿈꾸는 로컬리티: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예술

《미얀마의 봄: Art for freedom Myanmar》는 마음과 마음이 모여 폭력에 저항하는 시각언어의 힘을 보여준다. 이 전시를 통해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리티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역(Local)의 모든 자원을 자본의 관리체계 안에 합병하고자 하는 기획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면, 로컬리티는 국제적(globalization) 자본의 현지화(localization) 전략과 수탈에 저항하는 비판적 실천 행위이다. 대한민국 김해에서 미얀마 양곤으로 이어진 《미얀마의 봄》 전시는 세계화 모델에 대항하는 로컬리티 미학의 구체적인 증례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로컬리티를 지나치게 숭고한 개념으로 신성화해서는 안 된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박형주

Žižek)을 언급할 것도 없이, 실체 없는 '환상'은 돌림병과 같이 무섭게 전파되어 우리 삶을 왜곡하는 무기가 된다. 로컬리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의 예술 장은 찌질하고 비루한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지역의 예술인 커뮤니티가 시민과 괴리된 자족적 문화 행사나 반복하는 것을 두고 로컬리티의 실천이라 부를 수 없다. 또 예술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태도 역시 애잔한 자기애일 뿐이다.

비록 남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망각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와 마음이 존재한다. 예술의 로컬리티는 그 마음을 장전하고 격발하는 용기를 준다. 예술은 각자의 삶을 재구성하고 뒤흔드는 정동(affect)의 발현 계기이며, 로컬리티 미학과 사상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local)에서 그것이 용기하고 정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컬리티란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마음의 앙가주망(engagement)이며, 기득권에 의해 호명되고 규정되는 자아 정체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탈구축하고자 하는 자기 혁명이다.

글쓴이 심소미는 독립큐레이터로, 서울과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도시문화에 대한 비판적 개입으로서 전시와 공공포로젝트 및 연구를 해왔다. '제11회 이동석 전시기획상'(2018)을 받았으며, 디지털 큐레이터 어워드인 '현대 블루 포리아즈 디자인 2021'을 수상하였다.

# 전염병 이후,

## 집과 도시의 경계

## 심소미 (독립 큐레이터)

# 36

올해 말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문화연구지 계간 『문화/과학』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프롤로그: 질병과 혐오

파리는 내게 감염의 도시였다. 2019년 여름이었다. 여름 휴가차 들른 파리에서 수두에 걸렸다. 어느 날, 민소매를 입은 팔에 물집이 하나 보였고 며칠 후 얼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이동이 금지된 사람, 최근의 용어라면 '자가 격리'의 대상이었다. 귀국을 앞둔 상황이라 서둘러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거리 두기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숙소에 머무를 수도,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머리카락 아래까지 수포가 점령한 몸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공원에 몸을 숨겼다. 나뭇가지 사이로 허름한 텐트가 보였고,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 들어가는 노숙인을 보았다. 사회적 혐오로부터, 거리에서조차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공원에 있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꼬박 2주를 더 보내고, 검은 딱지들이 몸에서 떨어지고 나서야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몸에 남은 곰보 자국처럼, 파리는 내게 잊을 수 없는 감염의 도시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다시 찾은 프랑스는 팬데믹으로 전국이 아우성이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된 가을, 나는 먼저 프랑스로 돌아간 배우자를 좇아 삼엄한 분위기의 국경을 건넜다. 인천 공항과 샤를 드골 공항에는 마치 전쟁처럼 삼엄한 긴장감이 흘렀다. 프랑스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전국에 봉쇄령이 시행되었다. 이번에는 공원마저도 자유롭게 갈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통제 규범

이 도시 전체에 적용되었다. 이 글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두 번의 봉쇄령을 겪은 나의 경험을 더듬어, 집과 도시의 경계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룬다.



봉쇄령 시 거리풍경:  
도로에 표기된 1M  
거리두기 마크,  
2020년 11월 4일  
©심소미

## 집, n의 시간과 1km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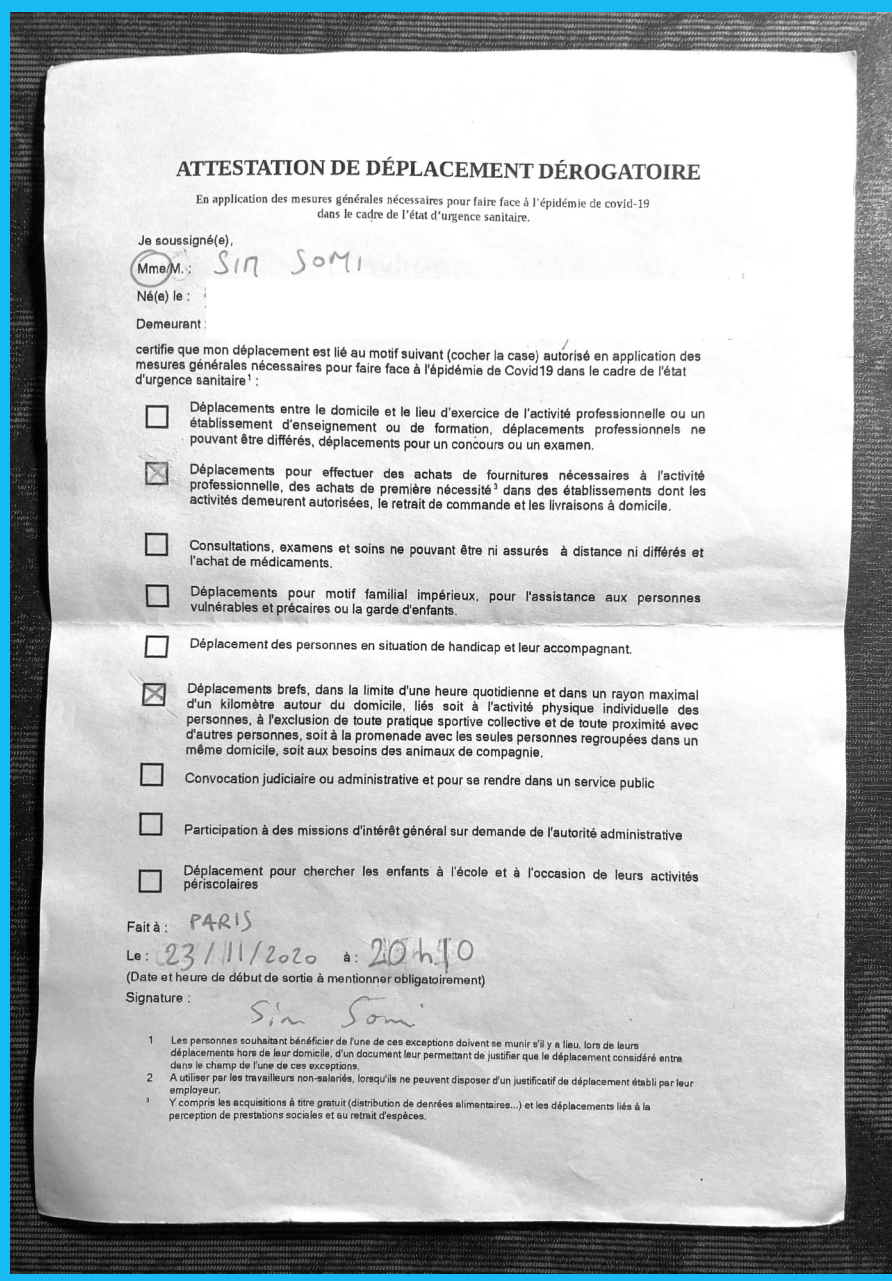
인간의 상태: 불안정, 권태, 불안. 나는 인  
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종종 말하곤 한다.

(파스칼, 『팡세』, 1670)

봉쇄령이 시작될 당시에만 해도, 긍정적인 태도로 집에서 글쓰기에 집중하거나 실현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자고 다짐했다. 창밖을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나날들이 반복되자, 문득 폴란드의 영상작가인 유제프 로바코브스키(Józef Robakowski)의 단편 영상이 떠오르기도 했다. <From My Window>(1978-1999)는 작가가 자신이 사는 고층아파트의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위의 풍경을 기록한 작업이다. 80년을 전후로 폴란드의 사회주의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변화의 모습을 호텔 건설현장, 자동차, 쇼핑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해 보인다. 지금이었다면 CCTV의 시선처럼 보이겠지만, 시장 중심 사회를 향한 작가의 시니컬한 내레이션이 돋보이는 작업이다. 로바코브스키처럼 주위에서의 미시적인 변화를 포착해보겠다는 의지를 품어보기도 하지만, 봉쇄령 하에서의 폐쇄감, 집에서 기약 없는 해방을 기다려야 하는 무기력한 상황이 의지를 추월한다.

39

2차 봉쇄령 시 본인  
지참 통행증  
(1km 이내 1시간 만  
통행 가능),  
2020년 11월 23일  
(외출시간: 오후 8시  
10분) ©심소미



40

내가 무기력을 이겨낼 방법은 팬데믹으로부터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지형도를 리서치하는 것이었다. ❖  
한국에서 거리를 두고 조사할 때는 그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 꽤 흥미로웠는데 막상 봉쇄령으로 신체가 통제되는 상황이 되니 이 모든 것이 그다지 유쾌하진 않았다. "도시가 텅 빈 모습을 기록하자"는 내 제안에 배우자이자 협업자인 줄리앙 코와네(Julien Coignet) 작가는 팬데믹 속에서 "실업의 위기, 실존의 위기, 정신적 공황이

❖  
'팬데믹 이후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리서치는 문화이론지 『문화/과학』 2021년 봄 호에 기고하였다. 심소미, 「시공간이 재단된 세계에서: 파리의 1킬로미터 미시-산책자」, 『문화/과학』, 봄 통권 105호, 2021, pp. 243-260.



■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강우성 역, 북하우스, 2020 참조.

이리도 큰 데, 어떻게 리서치만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도시공간이 변화하는 미시적 풍경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관찰하겠다는 생각이 단순한 발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공간, 공공장소, 행동양식의 가시적 변화는 추적할 수 있으나, 배후에서의 심리적 공황, 사회적 병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경계에 놓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 또한 정신적 위기를 경험했다. 지하철 광고판에는 '코로나19 우울증 상담 전화' 광고가 들어설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권태와 우울은 깊어져 갔다.

마치 수학방정식에서 " $n$ 이 무한히 커질 때.."를 지칭하듯, 집의 시간은 실제의 시간 개념을 넘어 점차적으로 커져나가는 심리적 공간, 정신 병리의 공간으로서의  $n$ 이 되어 가고 있었다.  $n$ 의 자리에는 집뿐만 아니라 예고, 무의식, 기억이 들어갔다가 이후 불안, 불안정, 동요, 부정, 분노, 슬픔, 권태, 혐오 등과 자리 교체를 하였다. 이는 팬데믹 이후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언급한 인간의 상태 5단계(부인->분노->타협->우울->수용)의 점진적 상황과도 긴밀하게 얽혀있다. ■ 봉쇄령 동안 물리적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빈번히 찾은 곳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이다. 인류의 불안은 팬데믹 속에서 더욱이 고조되었다. 수 백 년 전에 이미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인간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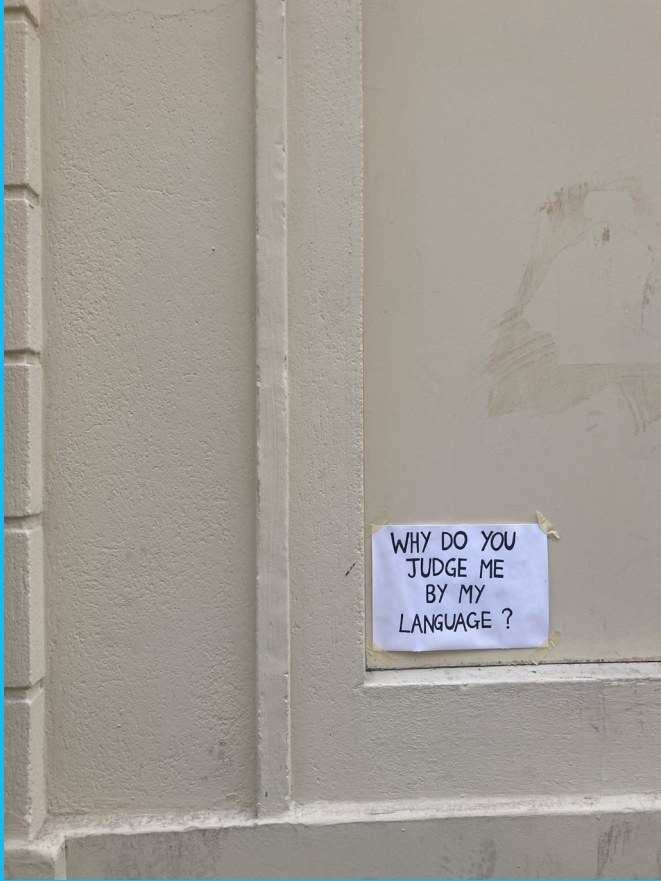
41

으로 명시한 "불안정, 권태, 불안"에 따라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현 인류의 위기는 인간의 존재를 총칭하는 존재론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하에서 급증한 사람들의 공황상태는 점차적으로 현실을 체념하게 하였고, 확산세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탈출하여, 가족과 조우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대의 집으로 향하였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파리 탈출을 감행했으며, 한적한 교외나 고향으로 떠났다. 우리 또한 그들 중 하나였다.

### 권태와 혐오로부터, 거리라는 공공장소

팬데믹의 권태가 전환점을 맞은 것은 봉쇄령이 1km에서 20km로, 이동의 시간 또한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1km에서 벗어나 그 바깥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는 거리에서 마주한 혐오에 의해 의기소침해지고 있다. 홀로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중국여자"라고 고함치는 거리의 불한당을 마주한 경험은 심지어 전에 없던 두려움까지 증폭시켰다. 타국에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혐담을 듣는 일은 팬데믹 동안 몇 번에 걸쳐 일어났다. 가장 평범한 일상의 오후,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뒤섞인 거리의 인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분노의 고함이 창살처럼 등에 꽂히고, 알 수 없는 고함은 폭력으로 각인되었다. 내 스스로 사회적 존재를 증명하기도 전에, 코로나

19 시기의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었다.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분류된 나의 정체성은 팬데믹 기간 동안 증폭된 차별과 혐오의 흔적이었다.



봉쇄령 시 거리 그래피타: "당신은 왜 나를 내 모국어로 판단하나요", 2020년 10월 28일 ©심소미

# 43



봉쇄령 시 거리 그래피타: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연대", 2020년 12월 20일 ©심소미

그러나 혐오의 시선에 맞서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또한 거리였다. 심리적 권태와 분노로부터 이를 털어내고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거리뿐이었다. 예기치 못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 곳이 거리이지만,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서 사람들을 포용하는 곳 역시도 거리이다. 파리에서는 거리를 서성이는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이동 제한이 생기자 거리에서 하릴없이 머무는 사람들은 더욱 더 많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거리의 집회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때 쯤이다. 이주민, 페미니스트, 기후운동가, 난민, 불법체류자, 문화예술인 등 거리에는 사회정치적 불합리에 맞서는 다양한 주체의 사람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매 주마다 여성의 권리와 이주민의 권리를 주창하는 행렬,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시위, 사회적 권리를 외치는 발언과 문화공간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가 매 주말마다 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집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공공의 발언이 되어 간다. 집회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로 거리 곳곳에 등장한 그래피티는 사회적 현안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공공 메시지로서 거리에 존재해 왔다. 정부의 방역정책 비판, 공권력 문제 등 사회 비판적인 문구들이 거리 곳곳에 가득한 가운데 벽 한구석에 붙은 영어 문장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당신은 왜 나를 내 모국어로 판단하나요?(Why do you judge me by my language?)"

## 에필로그: 봉쇄령 이후의 거리

★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19 봉쇄령이 3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1차: 2020년 3월 17일~5월 10일, 2차: 2020년 10월 30일~12월 15일, 3차: 2021년 4월 5일~5월 3일) 2020년 10월 30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던 문화공간, 카페, 레스토랑, 상점은 봉쇄령 이후인 2021년 5월 19일부터 허용되었다.

# 45

2021년 5월 19일★, 봉쇄령 해제 이후 식당·카페 등의 야외 영업, 박물관·미술관·영화관·백화점·대형쇼핑몰이 전면적으로 재오픈했다. 카페 테라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심지어는 테라스 자리를 잡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까지 거리에는 인파가 가득했다. 200일 만의 재개장은 마치 봉쇄령이 시작되기 직전 새벽까지 이어진 파티를 연상시켰다. 반 년 간 봉쇄령과 이동통제령에 있던 나에게 카페와 식당, 쇼핑으로 가득한 파리의 일상은 다소 낯설다. 젊은 여성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붉은 입술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카페에 다닥다닥 붙어 와인과 맥주를 즐긴다. 거리에는 반 년 이상 멈췄던 문화, 상업, 정치, 사회 관련 광고들이 대거 등장해, 역동적인 도시의 현황을 전한다. 최근에는 '낙관주의, 긍정주의'라 쓰인 희망적 메시지의 상품 광고도 부쩍 증가하였다. 백신 접종 안내,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 광고, 그리고 거리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 없는 그래피티와 게릴라 슬로건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팬데믹 속에서 이에 대응해온 도시의 흔적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슬로건들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간다.

서울,  
실시간

BOSHU  
(대전페미니스트문화기획자  
그룹)

46

서울 살이에 지친 당신은 도래한 온택트(On-tact) 시대에 재택근무를 약속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한다. 다른 지역 사람과 미팅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화상채팅을 진행하면 그만. 군산, 포항, 경주, 서천에 사는 사람들과 언제든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일 할 수 있다. 집값도 싸고 인구밀도도 낮으며, 코로나19 이후 온택트 업무가 자연스러워진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살이에도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교통의 요지, 어디든 2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한반도의 가운데, 대전광역시로 이사하기로 한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KTX를 타면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사 후 석달이 지났다. 당신은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자다. 지인들과 함께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어떤 행사를 열면 좋을까? 여성들이 함께 땀흘리고 몸을 부딪치며 운동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생각으로 여성을 위한 스포츠 클럽 <우먼스 프레임>을 기획했다. 당신은 서울에서 일하던 방식대로 SNS로 사람을 모았다. 세련된 이미지 밑에 이런 댓글이 달린다. 서울에서도 열어주세요! 서울에서 행사를 열 때마다 늘 취재요청을 해왔던 기자들에게 연락하니, 기획이 너무 좋다고 일시와 장소를 확인한다. 대전이라고 말했더니 그가 말한다. 아, 서울에서 하는게 아니었어요? 당신과

동료들은 조용히 행사를 마친다. 몇 달 후, 지인이 같은 기획으로 서울에서 여성 축구팀을 창단한다. 지원자는 하루 만에 80명이 모였고, 지인은 분반해야 할지, 선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당신이 취재요청을 했던 기자들은 서울에서 먼 행사에 갔고, 당신은 기사를 통해 여성 축구팀의 소식을 확인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고, 필요하면 기차 타고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지만, 어쩐지 자꾸만 소외되는 것 같은 당신. 하지만 괜찮다. 당신은 서울에서부터 문화 예술계 여성 네트워크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다. 지역으로 이사한 이후 당신은 한 달에 한 번씩 모프라인으로 만나던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졌지만, 대신 온라인 만남을 전보다 확대하기로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기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회원이 모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지원 내용을 찾아보니 당신이 찾던 바로 그 지원사업. 대전에서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것저것 찾아본 뒤였지만 취지도 일정도 규모도 맞는 게 없어 낙심하던 차였다. 어떻게 말았냐고 하니, 지난 정기 모임 때 다른 모임원에게 들은 소식이라고 한다. 그가 말한다. 그때 너 없었나? 개인적으로 공유해줄걸. 당신은 괜찮다고 말한



다. 다음 달 모임은 아무리 바빠도 서울에 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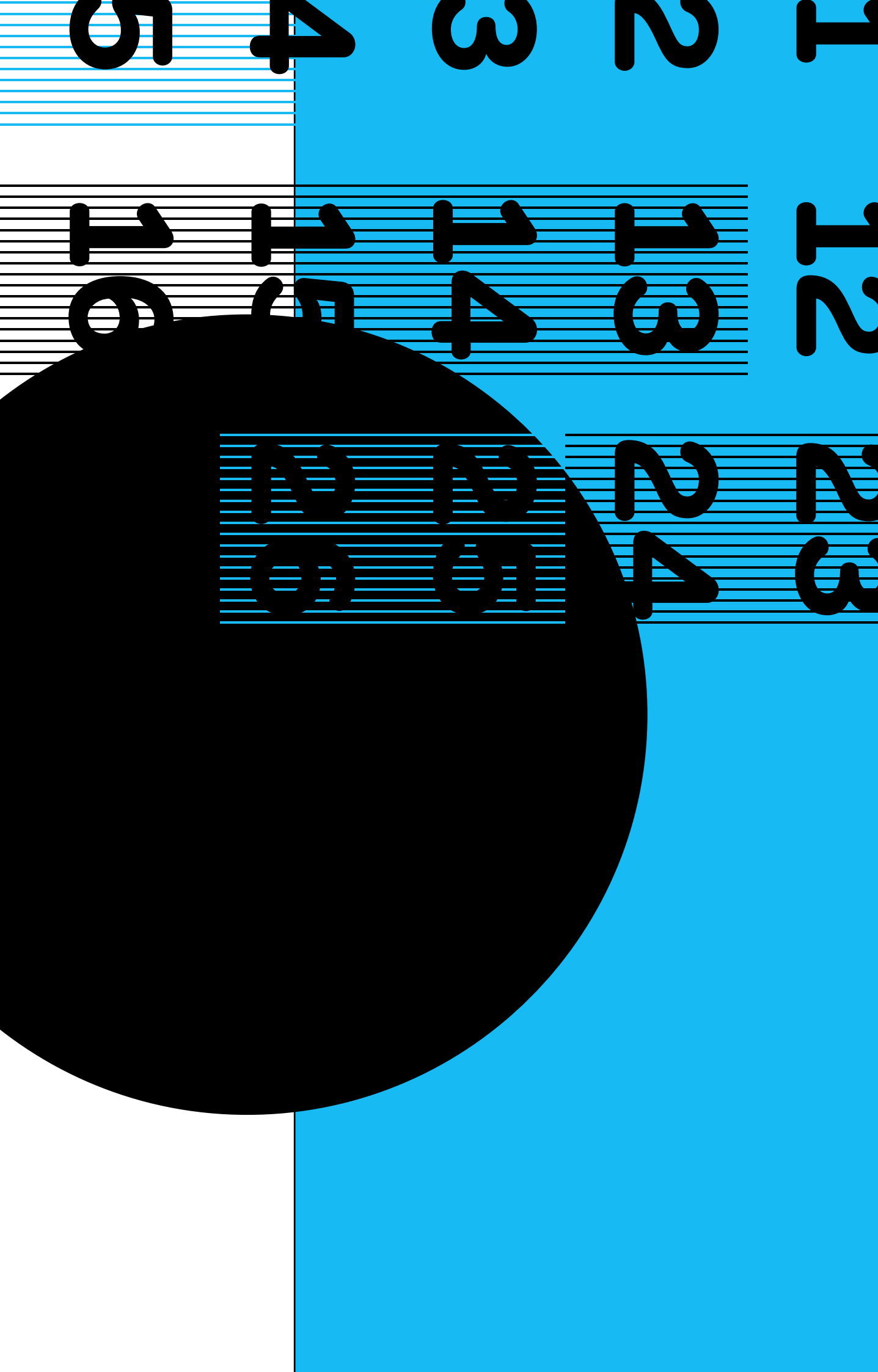
당신은 새로운 동료로 만나기가 힘들다. "이미 관찬은 애들은 다 서울로 갔고,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서울에 못 갔다는 생각이 강하다." ❖ 대전은 대학이 9곳이나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곳은 서울이다. 문화컨텐츠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은 많지만, 문화컨텐츠 생산자는 별로 없다. 대전에 계속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당신은 디자이너를 구하기도, 사진작가를 구하기도, 기획자를 만나기도 어렵다. 서울에 사는 다른 동료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기에는 줌(zoom)도 슬랙(slack)도 역부족이다. 급히 만나야 할 때는 서울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이들 끼리 모인다. 당신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어쩐지 시간 바깥으로 밀려나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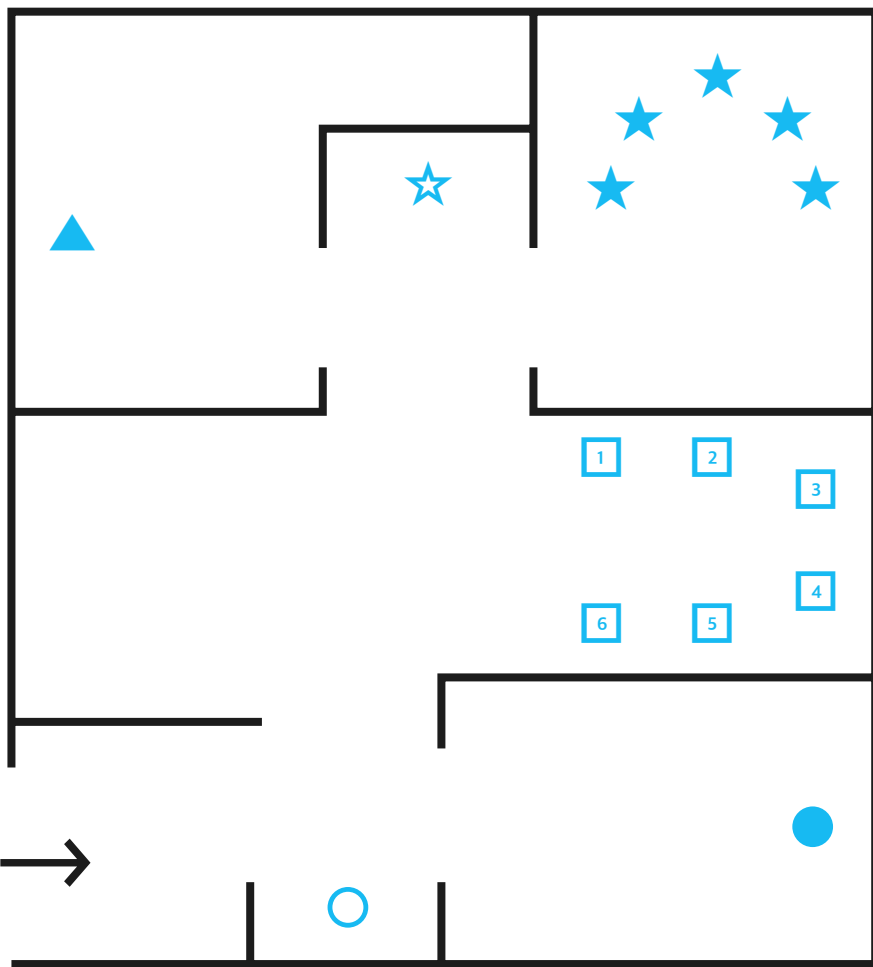
서울에 "지역 소멸"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고 한다.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일정이 많은 한 주를 보내 컨디션이 좋지 않다. 언제 또 기차표를 예매하고 기차역에 가서 서울에 가는 기차를 타나, 마음은 가깝지만, 몸이 멀다. 지하철만 타면 SNS에서 본 그 모든 전시와 행사들이 열리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을 떠올린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시간은 똑같지만, 어디에 사

❖ BOSHU, 「대전으로 가는 기차표는 매진입니다」, 『BOSHU : 권태』, 제7호 (2016), p. 6.

느냐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감각된다. 서울은 실시간의 도시이며, 지방에 살게 된 당신은 언제나 한 발 늦게 된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 ▲ 기술기, <전시장 가는길\_7개의 시공간 그리고 인미공>, 2021, 잉크젯 프린트, 100 x 132cm  
Seulki Ki, *way to the exhibition*, 2021, inkjet print, 100 x 132cm
  
- 김재민이, <오근세氏를 찾아서>, 2020, 단채널 비디오, 6분 17초  
Gemini Kim, *Finding Mr.Ogeunse*, 2020, single-channel video, 6min 17sec
- 김재민이, <보이지 않는 공장 (첫 번째)>, 2021, 단채널 비디오, 9분 30초, 음악: 나도  
Gemini Kim, *Invisible Factories (1st)*, 2021, single-channel video, 9min 30sec, Sound by Nadoo
  
- 1 문영민, <초심 II>, 2019, 리넨에 유화, 53 x 45.5cm  
Young Min Moon, *Beginner's Mind II*, 2019, oil on linen, 53 x 45.5cm
- 2 문영민, <제삿밥을 못 얻어 먹는 것도 억울한데...>, 2019, 리넨에 유화, 53 x 45.5cm  
Young Min Moon, *It's bad enough to miss the offerings ...*, 2019, oil on linen, 53 x 45.5cm
- 3 문영민, <방사선 전문의와 십자가>, 2020, 리넨에 유화, 53 x 45.5cm  
Young Min Moon, *The Radiologist and the Crucifix*, 2020, oil on linen, 53 x 45.5cm
- 4 문영민, <동그랑땡 언덕과 더 많이>, 2021, 리넨에 유화, 53 x 45.5cm  
Young Min Moon, *A Mount of Round Patties and More*, 2021, oil on linen, 53 x 45.5cm
- 5 문영민, <추석과 송편>, 2021, 리넨에 유화, 53 x 45.5cm  
Young Min Moon, *Moon Cakes at Harvest Moon*, 2021, oil on linen, 53 x 45.5cm
- 6 문영민, <관계의 감각: 자화상>, 2021, 리넨에 유화, 41 x 31.8cm  
Young Min Moon, *Some Sense of Order: Self-portrait*, 2021, oil on linen, 41 x 31.8cm
  
- ★ 이원호, <적절할 때까지 I>, 2019, 5채널 비디오, 60분  
Wonho Lee, *Til it's right I*, 2019, five-channel video, 60min
- ★ 이원호,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위한>, 2017, 단채널 비디오, 39분 55초  
Wonho Lee, *For those that are not being free*, 2017, single-channel video, 39min 55sec

# 기슬기 Seulki Ki

서울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학부, 영국 런던대학교의 슬라이드 미술대학원 파인 아트 미디어과를 석사 졸업했다. 《Do Not and Cannot are Different》(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2021), 《사생활》(스페이스 캔, 2019), 《Theater Near Me》(두산갤러리, 뉴욕, 2018), 《Sub/Ob-Ject》(두산 갤러리, 2017), 《Enfolded Order》(스페이스 K, 2015)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A Future Without a Past》(Migrant bird space, 베를린, 2020), 《오픈 유어 스토리지: 역사, 순환, 담론》(북서울미술관, 2019), 《2018 대구사진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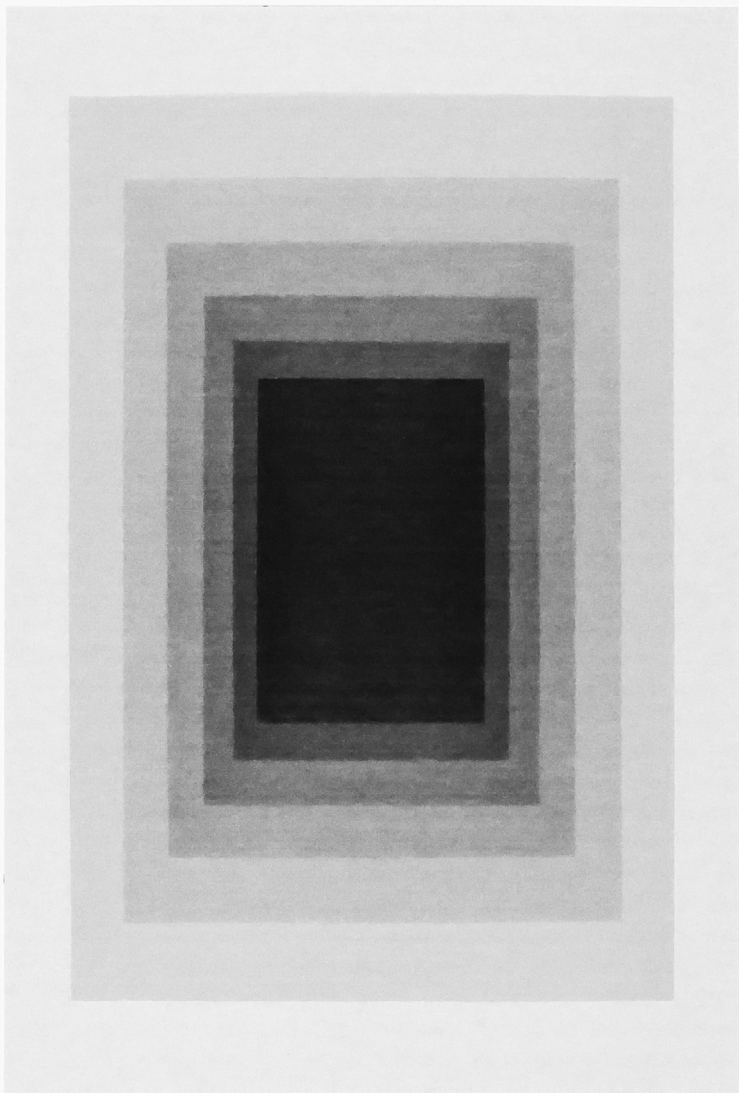
역할극, 신화 다시쓰기》(2018), 《다른 차원, 국제 사진축제》(노보시비르스크 시립미술관, 러시아 2016), 《Artist File 2015 : Next Door》(국립 신미술관, 도쿄, 2015), 《생생화화(生生化化)》(경기도미술관, 2014) 등 다수의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53

시간과 순서에 비례하여 먼저 촬영된 이미지일수록 어두워지고 작아져 원근감이 형성되고 하나의 연결된 통로처럼 연출된다. 각자가 주거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집'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록되며, 이 기록된 이미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반복된 과정을 거쳐 작업이 진행될수록 시공간의 경계들이 쌓여나간다.

-작가 노트 중

# 54



전시장 가는 길, 7개의 시공간 그리고 인미공  
2021, 잉크젯 프린트, 100 x 132cm

*Way to the Exhibition*  
2021, inkjet print, 100 x 132cm

독일에 거주 중인 작가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담긴 메시지를 《접힌 경계: 안과 밖》의 참여자들에게 보낸다. 여러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촬영한 메시지는 다른 장소와 시간에 전달되고, 작가는 이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낸다.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동하며 완성된 작품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은 희미해진 채 마치 거울에 반사된 것 같은 무한한 이미지의 형태로 인미공 2층에 전시된다.

# 김재민이 Gemini Kim

55

지역리서치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거대 담론에 반하는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를 한국 주변 나라와 나누고 교류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주변부라 칭해지는 대도시 외곽 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한다. 한-중-일을 잇기 위해 계속되는 '공장 달리기' 외에 베트남에서 벼농사를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보이지 않는 공장 (첫 번째)  
2021, 단채널 비디오, 9분 30초,  
음악: 나도

*Invisible Factories (1st)*  
2021, single-channel video, 9min 30sec,  
Sound by Nadoe

56

서구의 근대공업을 도입하기 위해 18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경인공업지대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의 역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거대했던 공장이 사라지며 공업지대로서의 역할이 쇠퇴하면서 장소의 기억은 퇴색되었다. 작가는 전자음악을 배경으로 근대화의 산물이었던 공장의 공간과 지역을 달리며 그 사이에서 멈추지 않았던 생산의 움직임을 기억한다.

김재민이 Gemini Kim





오근세氏를 찾아서  
2020, 단체널 비디오, 6분 17초

*Finding Mr.Ogeunse*  
2020, single-channel video, 6min 17sec

이 작품은 영화 <기생충>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오근세'의 혼인신고서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오근세'의 혼인신고서에 적힌 그의 태생지가 작가가 어릴 적 살던 부천의 복숭아밭 근처임을 발견한다. 이에 작가는 경기도 부천의 변두리에서 '오근세'의 현재 주소지인 서울의 대림동까지 16km를 걸으며 지나온 풍경을 담는다. 부천과 서울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가면서 서울이라는 장소에 진입하려는 이들의 꿈과 욕망, 삶을 상상한다.

57

# 문영민

# Young Min Moon

문영민의 작업 및 비평은 근현대 아시아와 북미의 역사·정치적 관계 속에서 그가 경험한 문화 간의 이동과 정체성의 혼성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다. 그의 관심사인 아시아의 모더니티와 시각문화는 탈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지적·특수성을 근거로 삼는다. 산수문화, 금호미술관, 아트 스페이스 풀, 경기도미술관, 국제갤러리, 스미스컬리지 미술관, 하버드대학교 카펜터예술센터 등에서 전시했다. 구겐하임재단 펠로우십과 조앤 미첼 재단 기금을 수상했으며, 2021년 난지미술창작센터에 입주한 바 있다. 비평가로서 그는 *볼*, *Rethinking Marxism*, *Contemporary Art in Asia: A*

*Critical Reader* (MIT) 등에 여러 논문을 기고했으며, 최근 한국미술사 교과서인 *A Companion to Korean Art* (Wiley)에 한국현대미술 챕터를 기고했다. 또한 온라인 사진비평저널인 *트랜스아시아 포토그래피 리뷰*(*Trans Asia Photography Review*)에 전쟁 이후의 후유증을 주제로 한 특별호를 객원 편집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주립대 미술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58



초심 II  
2019, 리넨에 유화, 53 x 45.5cm

Beginner's Mind II  
2019, oil on linen, 53 x 45.5cm

작가, 비평가 그리고 이민자인 문영민은 그동안 절하는 남성의 뒷모습을 담은 회화로 제사를 통한 애도와 성찰을 이야기했다.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지만 유교의 종교적 행사인 제사를 지내며 동서양의 종교문화를 경험한 작가에게 제사의 의미는 각별하다. 특히 폭력과 혐오의 세상에 타자에게 애도와 용서를 기릴 수 있는 자리로서 제사는 작가에게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최근 작품에서 제사상은 각 집안 고유의 전통과 문화,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이 교차되며 안착된 흔적이기도 하다. 십자가, 성상, 치킨 등이 올라간 각각의 제사상은 서구와 동양의 기호가 공존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혼종성을 가진다. 한편 화면 속 제사의 형식과 형태는 각자가 겪은 전통의 양면을 떠올리게 하며, 더 나아가 제사(상)를 둘러싼 가족 간 노동의 복잡한 관계까지 상기하게 만든다.



제삿밥을 못 얻어 먹는 것도 억울한데...  
2019, 리넨에 유화, 53 x 45.5cm

*It's bad enough to miss the offerings..*  
2019, oil on linen, 53 x 45.5cm



방사선 전문의와 십자가  
2020, 리넨에 유화, 53 x 45.5cm

*The Radiologist and the Crucifix*  
2020, oil on linen, 53 x 45.5cm



동그랑땡 언덕과 더 많이  
2021, 리넨에 유화, 53 x 45.5cm

*A Mount of Round Patties and More*  
2021, oil on linen, 53 x 45.5cm



추석과 송편  
2021, 리넨에 유화, 53 x 45.5cm

*Moon Cakes at Harvest Moon*  
2021, oil on linen, 53 x 45.5cm



관계의 감각: 자화상  
2021, 리넨에 유화, 41 x 31.8cm

*Some Sense of Order: Self-portrait*  
2021, oil on linen, 41 x 31.8cm

# 이원호

# Wonho Lee

# 53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물이나 공간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들을 둘러싼 개념을 해체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사회적 규칙이나 통념, 상식을 전복시키는 과정을 통해 주변 사물을 대하는 색다른 태도, 세상의 이면을 이해하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홍익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조소과에서 Diplom 과정과 Aufbaustudium 과정을 졸업했다. 2020년 《모씨이야기》(523 쿤스트독, 부산), 2019년 《적절할 때까지》(페리지 갤러리, 서울), 2017년 《The weight of the vacuum》(Yumiko chiba asso-

ciates, 도쿄) 등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21년 문화역서울 284에서 《보더리스 사이트》를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일본 국립신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그룹전과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적절할 때까지 I  
2019, 5채널 비디오, 60분

*'Til it's right I*  
2019, five-channel video, 60min

작가는 서울의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 안에 딱 차는 오각형을 그려 넣는다. 집의 형태를 상징하는 이 오각형을 기준으로, 작가는 휴대폰 GPS에 의존해 나무막대를 끌고 그 장소로 향한다. 그곳에 다다르는 과정에 특별한 일은 없다. 작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이동하는 대로 시선을 움직여야 하고, 지팡이처럼 생긴 나무막대가 콘크리트 바닥과 마찰하는 소리만이 울릴 뿐이다. 5개의 화면에서 등장하는 간판 등으로 작가의 현재 위치를 간신히 유추해보지만 결국 지역의 구분선을 넘고 넘어 도착한 곳은 서울이라는 경계의 끝 부분이다. 이제 작가는 꼭 지점에서 몸을 돌려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스스로 지정한 경계선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GPS없이 움직이기 어려운 신체와 약속된 구조 내로 회귀해야 하는 암묵적 규칙이자 한계이다.

64





65



about those that are not being free



그런 땅은 있어도 싼대로 팔아  
There is no land under W3 million



저기 땅 구입하는 자들이 정말 돈이 많아요?  
Hey, you really are looking at it with W3 million?



어쨌거나 이익은 없고요 이익은 워낙 많잖아 너무 비싸요  
Anyway, none in this part, here is too expensive



예를 들어서 벉을 농장을 경우에는 이익 오히려 없고 손해 오히려 있고 하나까  
capital in real estate got doubled or even tripled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All those media talked about chinese-ruzz investment in Jeju, but it wasn't true



땅이 지꾸 분할이 되고 쪼개 지는 것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땅은 이미 단가가 높소  
The average size of land sales are getting smaller because of the urbanization



이런 그러한 분할이 오셨다가 10년 전자가 이 집 1년 앞은 상황에서 역가님이 노년 거 같아요  
All these people came and left 10 years ago, and you came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위한  
2017, 단채널 비디오, 39분 55초

For those that are not being free  
2017, single-channel video, 39min 55sec

작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제주도에 땅을 사기 위해 몇몇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와 대화를 기록한다. 국내 어디든 한 평 구하기도 어려운 액수로 거래를 하겠다는 이 무리한 시도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단호한 평가와 제주도라는 땅의 가치, 그리고 이해관계들이 무겁게 엉겨 붙는다. 작가가 마지막으로 구매를 시도한 땅은 무엇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면적이지만 그 거래조차 이윤 추구의 논리와 기대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만다. 섬 안팎으로 오가는 자본과 이익, 그 규모에 따른 각자의 가치판단은 끊임없이 엇나간다.

99



# 해변의 카카카

## Cacaca on the Shore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곳곳에서 지역의 재생과 발전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은 지역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지방도시소멸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 안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과 고민의 흔적들을 그려내고 있다.

낮선 땅에서의 불안함과 불편함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귀촌인들의 이야기로부터, 과거에 비해 정체되어 가는 농어촌의 현실을 걱정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농어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소멸위험지역'이라는 라벨을 걷어내고 지역의 공간에서 다양한 상상을 펼쳐내는 창작자들의 시선까지. 지역의 소멸을 타개할 획기적인 대안이

나, 지방소멸론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개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은 '살아감'과 '사라짐' 사이의 긴장을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와 시선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일견 담담해 보이는 글과 사진들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그 안에 숨어 있는 역동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돋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잘 살아가고 잘 사라지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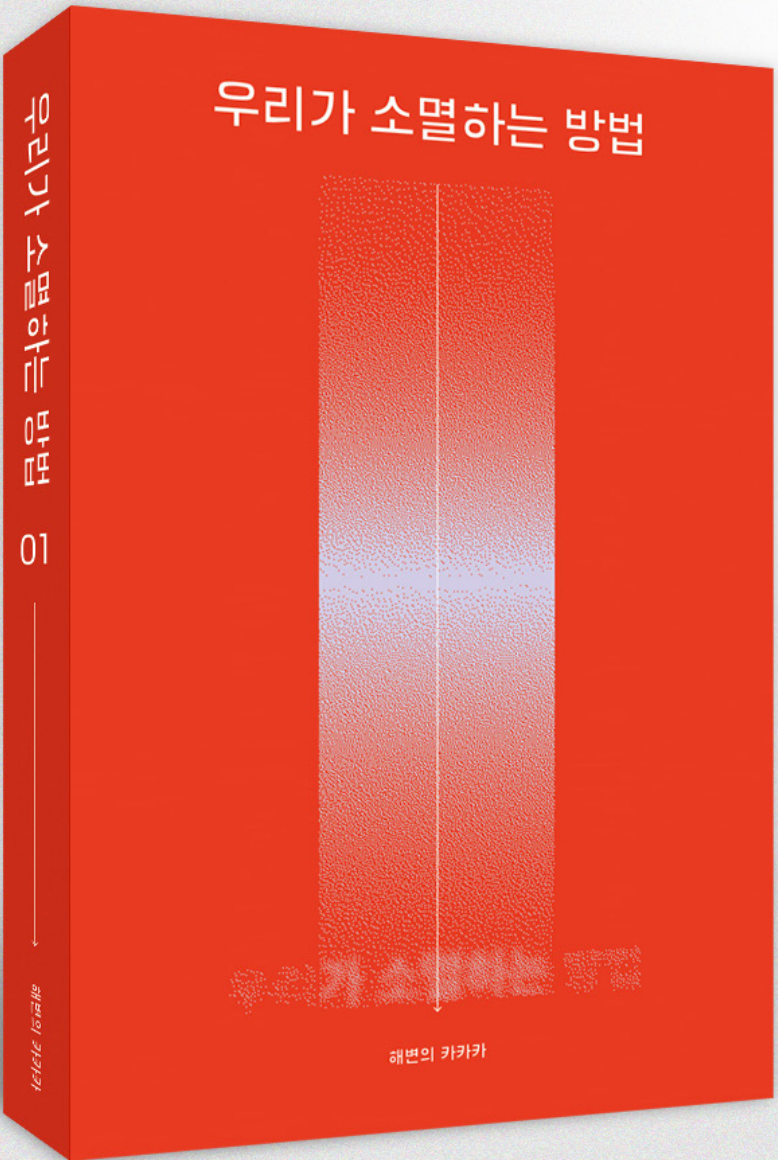
Memento mori.

언젠가는 올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살아내자는 옛 사람들의 말처럼, 언젠가 올 '소멸'의 시간을 생각하며 지역의 오늘을 고민하는 이들의 흔적이 담긴 책이다.

김반석(사회학 연구자)

98

69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 01  
사진제공 ©해변의카카카



선구마을, #06



선구마을, #07



오동마을, #01



선구마을, #08



선구마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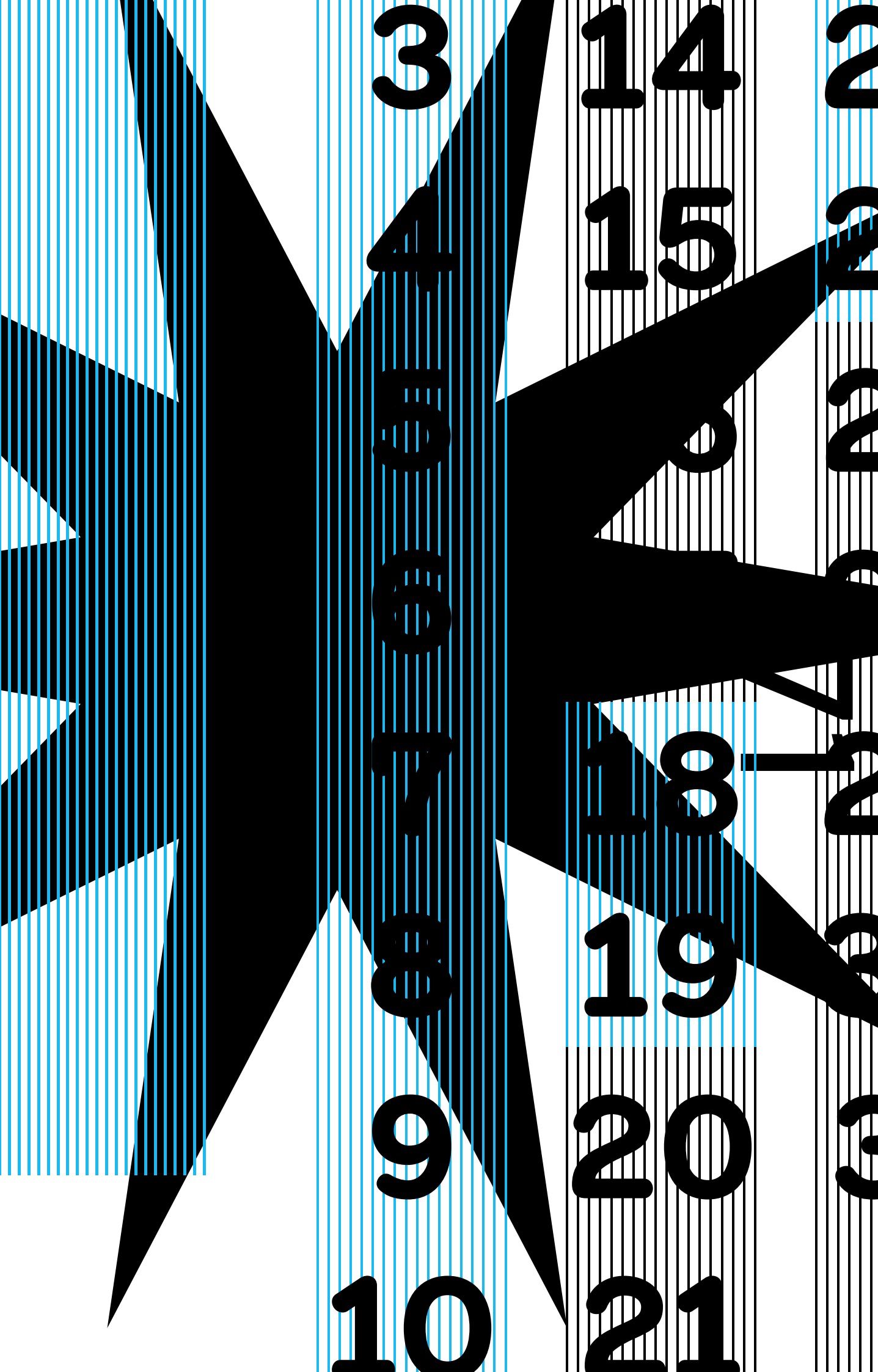


선구마을, #02



선구마을, #03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 01  
사진제공 ©해변의카카카



10

9

8

7

6

5

4

3

21

20

19

18

17

16

15

14

3

2

1

2

2

2

2

2

# 월간 인미공 7월호 접힌 경계: 안과 밖

기술기  
김재민이  
문영민  
박형준  
보슈  
심소미  
이원호  
이형관  
해변의 카카카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미술관장  
임근혜

미술관운영부장  
최혜주

큐레이터  
김미정

코디네이터  
전솔아

홍보 및 도움  
이숙진

인턴  
최윤지

그래픽디자인  
김유나

공간디자인  
홍민희

미디어설치  
올미디어

사진  
홍한나

타이틀 번역  
이혜림

인미공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89  
02-760-4721~3

ias.info@arko.or.kr

  insaartspace

운영 및 관람 시간  
화요일-토요일 11am-7pm  
매주 목요일 2시-4시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관람이 어렵습니다.

인미공(구 인사미술공간)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아르코미술관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신진 예술인의 창작 연구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